

새들의 왕

원작자 | 아프리카 스토리북 이니셔티브, 비한 드 야허
글 | 김은파

원작 글 | 아프리카 스토리북 이니셔티브 (African Storybook Initiative)

원작 그림 | 비한 드 야허 (Wiehan de Jager)

글 | 김은파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야. 어느 날
왕을 뽑기 위해 모든 새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 새들은 누가 왕이
되면 좋을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흰머리수리가 왕이 되어야지. 힘이 세고 왕처럼 생겼잖아!”

“아니야, 흰머리수리는 왕관이 없어. 그리고 울음 소리가 너무 슬퍼.”

“그렇다면 타조는 어때? 몸집이 크고 울음 소리도 용맹하잖아.”

“말도 안 돼. 타조는 날지 못하잖아. 새들의 왕이라면 날 줄 알아야지.”



“나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고 공작새가 멋진 꼬지를 펼치며 말했어. “나처럼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되어야 해.”

그러자 부엉이가 말했어. “나는 어느 새보다도 눈이 커.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야 해.”

“아니, 부엉이 넌 안 돼. 너는 해가 뜰 때 자러 가잖아.” 하고 다른 새들이 외쳤어.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지. 그때 한 새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냈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해.” 그러자 모두 외쳤어.

“그래, 맞아!” 그러고는 모두 하늘 위로 날아올랐지.



거위는 높은 산 위로 하루 동안
날았어. 흰머리수리는 산 위의
푸른빛 속에서 이틀 동안 날았어.
하지만 누구보다 높이 올라간 것은
독수리였어. 독수리는 사흘 동안이나
쉬지 않고 태양을 향해 날았어.



다른 새들은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가장 높이 올라왔어. 그러니
내가 왕이야!”



바로 그때 독수리는 자신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

“쫑쫑! 내가 가장 높이 올라왔어. 그러니 내가 왕이지.”

그건 아주 작은 새였어. 독수리가 여기까지 날아오는 동안 날개를 붙잡고 있었던 거야.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하고
독수리는 말했어.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어. 독수리는 더이상
올라갈 힘이 없을 때까지 날았어.

“나는 다른 어떤 새보다 더 높이
올라왔어. 내가 모든 새들의 왕이야!”
하고 독수리는 외쳤어.



하지만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서
작은 새가 머리를 쏙 내밀었어.

“아니, 가장 작은 새인 내가 새들의
왕이야!”

독수리는 너무 지쳐서 더는 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독수리는 땅으로 내려왔어.
작은 새는 여전히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 다른
새들은 작은 새에게 몹시 화가 났어.
작은 새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작은
새의 깃털을 모두 뽑아 버리려고
기다렸어.



하지만 눈치 빠른 작은 새는 다들
몹시 화가 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 도착하자마자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새들은 부엉이에게 말했어.
“너는 눈이 크니까 저 구멍을 잘
지켜봐. 작은 새가 나오면 꼭 잡아야
해.”
그래서 부엉이는 구멍 앞에 앉았어.



하지만 햇볕이 너무 따듯해서
부엉이는 곧 잠들어 버리고 말았어.
작은 새는 부엉이가 잠든 사이
구멍을 빠져나와 멀리 달아났어.



부엉이는 작은 새를 놓친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이제는 밤에만
사냥을 하고 낮에는 다른 새들을
피해 잠을 자게 되었대.

“새들의 왕” is a derivative of “King of Birds” by African Storybook Initiative and Wiehan de Jager, used under CC BY 4.0.
“새들의 왕”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